

HUMANISM

ESTHETIC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KYUNG HEE DENTAL SCHOOL NEWS LETTER

HELPERS

VOL.2. 2012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SPECIAL REPORT

- 02 HELPERS 비전과 목표
- 03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 04 '바보의 나눔'재단과 재능기부 MOU 체결

NEWS

- 05 미원 조영식 박사
- 06 학교 소식
- 08 신입교수의 주요경력과 연구분야
- 09 교실 소식
- 12 동문 소식
- 13 동아리 소식

INTERVIEW

- 18 김인철 2대 학장님

FOCUS

- 15 문화 탐방
- 16 해외 탐방
- 20 교실 탐방

PEOPLE

- 22 발전기금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가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받는 글로벌 치과의사 양성'(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 등의 7개의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슬기를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2012학년도를 맞이하며

치전원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새로움이 필요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준봉 원장

신록이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요즘입니다. 우리 학교도 이처럼 나날이 더 푸른 미래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9월에는 30년전 조영식 학원장님께서 제안으로 채택된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을 기념하여, UN의 요청으로 UN과 경희대가 함께 국제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로 웅비하는 대학 창학의 뜻이 펼쳐진 성공적인 성과라 생각합니다. 2011년은 경희대학교는 국내 대학평가에서 종합대학 5위를 차지하여 눈부신 발전의 행보가 입증되었습니다.

단과대학 수준에서도 2011년 우리 학교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통과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는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이룬 결과이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제적 인증평가기관의 인증도 획득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학과 동문님들의 지원으로 후배사랑의 터전인 종합진료실 장비가 지원되어 좋은 임상실습 환경을 이루었고 학생들의 편의 및 정보검색 시설도 보완되었습니다.

국민과 세계는 명문대학을 존경합니다. 인정받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분야에서 그만큼 가치있는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도약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노력과 아울러 구성원과 동문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박준봉

‘바보의 나눔’재단과 재능기부 MOU 체결

사회봉사 & 재능 나눔



MOU 체결.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박준봉 대학원장, 염수정 주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대학원장 박준봉)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사장 염수정 주교)과 2011년 12월 22일 재능기부 MOU를 체결했다.

명동성당 앞마당에서 열린 MBC 창사 50주년 특집 바보 나눔 대축제에 참여해 MOU 체결식을 가졌으며, 이 과정은 MBC-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방영되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준봉 대학원장, 김형찬 교무부대학원장, 전양현 학생지도실장, 방재범 치의학교육학교실 객원교수 그리고 백성선 행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학생들은 부스를 설치하고 무료 구강검진, 스케일링, 구취측정, 구강세균검사, 구강보건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양해각서(MOU)에는 ‘Lux Humanitas’ 정신에 입각한 인류에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재능기부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에 협조해서 두 기관이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치전원생은 2012학년부터 의무적으로 1학년은 근로봉사, 3,4학년은 진료봉사를 해야 하며, 그 장소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정성환신부)에서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서 이미 2012학년도 신입생(44기)은 입학식 다음 날인 지난 2월 22일 서울 인근 7곳에서 동시에 근로봉사를 하였고, 현재 3학년 학생은 4학년 원내생이 되면서 진료봉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서 경희대 치전원 학생은 매년 의무적으로 졸업하기 전에 근로봉사와 진료봉사를 하면서 인문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소외계층 즉, 독거노인, 저소득층 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뿐만 아니라 노숙자와 교도소 수감자까지

도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한 번 봉사를 해본 사람이 쉽게 다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경험함으로써 장차 사회에 나아가서도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치과의사가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학생지도실장 전양현

학문과 평화의 큰 스승, 영면에 들어가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 91세 일기로 2012년 2월 18일 타계



2012년 2월 18일~23일 '경희학원장'으로 치러진 미원 조영식 박사 장례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6,000여 명의 조문객이 평화의 전당 분향소를 찾았다.

조영식 경희대학교 설립자 겸 경희학원 학원장이 지난 2012년 2월 18일 오후 5시 13분 경희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미원(美源) 조영식 학원장님은 1921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명예법학박사 등 34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신홍준급대학을 인수한 그는 '문화세계의 창조자'라는 장학이념 아래 경희대학교를 '학문과 평화'의 요람으로 성장시켰다. 1961년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일관교육체제를 확립하고 경희학원을 설립했다. 경희의료원 설립과 함께 한의학학을 부활시켜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한 '제3 의학'을 창안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전쟁의 폐허 위에서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잘살기운동을 펼치며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다. 1970년대 들어서는 시야를 한반도 너머로 확장시켜 밝은 사회운동, 인류사회재건운동을 제창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평화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교육을 통해 세계평화를 구현한 20세기 최초의 교육자이자 사상가, 평화운동가로 평가받고 있다.

조영식 학원장님은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설을 주도해 전 세계 지성들과 인류의 미래를 모색했다. 세계대학총장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영구명예회장에 추대됐다. 이외에도 세계대학총장회 산하 평화협의회(HCP) 의장, 밝은사회국제클럽(GCS International) 국제본부 총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총재, 오토

피아평화재단 총재, 통일고문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세계인류학자대회에서 '인류 최고 영예의 장'을 수훈했다. 이밖에도 세계대학총장회 세계평화대상, UN 평화훈장, 아인슈타인 평화상, 비폭력을 위한 마하트마 간디상, 대한민국 정부 국민훈장 무궁화장, 만해평화상 등 67개의 상훈을 받았다.

조영식 학원장님은 1981년 UN이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그해 7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에서 이를 제안했으며, 제36차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영식 학원장님은 한·미간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했다. 1978년 미국 몬태나 주정부 고인의 제안으로 '한국 우정의 주간'을 선포했다. 1989년 8월 미국 의회는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며 국회의사당에 조영식 학원장님 이름으로 성조기를 게양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팔레르모대학은 '조영식 평화강좌' 개설과 함께 '조영식 평화전당'을 헌정했으며,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도 '조영식 평화강당'을 헌정했다. 독립국가연합(CIS) 학술원은 '제3 민주혁명' 이론을 창시한 공로를 인정해 조영식 학원장님을 정회원으로 선정 했다.

장례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김용철) 학원장으로 치러졌고, 빈소 및 분향소는 경희의료원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로비, 광릉캠퍼스 대회의실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012년 2월 23일 오전 9시에 거행됐다.

증진실 유닛체어 교체



2011년 10월 14일 치과병원 내 원내생 진료실에 기존 노후 되었던 유닛체어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했다. 기존 28대를 24대로 교체하면서 더 넓은 공간에서 원내생의 원활한 임상실습과 내원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치의학교육인증평가 인증



2010년 6월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및 각 영역별 연구위원장과 위원을 선정하면서 준비하였던 치의학교육인증평가는 2011년 6월 31일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동년 10월 35일~26일 양일간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거쳐 14일 보고서, 예비논평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12년 2월 22일 우리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15년까지 4년간 완전인증을 획득하였다.

MBC 바보나눔 축제 참가



2011년 12월 22일 우리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는 Lux Humanitas 정신을 계승하고, 재학생의 인성교육, 재능기부를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제64회 치과 의사 국가시험



제64회 치과 의사 국가시험이 2012년 1월 17일 가락중학교에서 치러졌다. 이번 국가시험에 우리 치전원은 85명이 응시하여 83명이 합격, 97.6%의 합격률을 기록하여 전국 전체 합격률 94.5%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12년 2월 21일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2012학년도 신입생 80명에 대한 입학허가와 함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소개를 하였다. 2011년에 맺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과의 MOU 체결의 후속 조치로 2012학년도 신입생의 노력봉사를 2012년 2월 22일 서울 각지에서 하였고, 이후 충주 쉐링턴 리조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박준봉 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보직교수와 함께 1학년의 담임교수도 참가하여 신입생들에게 경희인으로서의 애교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학위수여식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012년 2월 15일 치의학관 105(교수회의실) 및 평화의 전당에서 치러졌다. 이날 85명이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총장상 김효진, 대학원장상 윤나리, 경희의료원 치과병원장상 오문비, 강동경희대병원 치과병원장상 박주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상 장지웅, 동창회장상 김도섭, 서울치과의사협회장상 나승호 등 교내 및 외부 단체에서 수여하는 상에 대한 시상도 열렸다.

최대군교수 명예퇴임식



지난 1986년부터 치과대학에 26년 재직하였던 치과보철학교실의 최대군 교수가 2012년 2월 29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다. 오랜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하고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셨던 최대군 교수의 명예퇴임을 축하하기 위한 송별공연을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상조회가 주관하여 2012년 2월 28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가졌다.

신임교수 발령

2012년 3월 1일자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6명의 신입교원이 발령을 받았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교원의 명단과 직급은 다음과 같다.
악안면조직재생학교실 이수정 조교수, 노대현 조교수
구강생화학학교실 김정목 조교수
악안면생체공학교실 배호재 조교수
치과보존학교실 김덕수 조교수
치과보철학교실 안수진 조교수

201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 중 표창자



총장상 김효진
대학원장상 윤나리
병원장상 오문비(경희대학교 치과병원장), 박주영(강동경희대병원 치과병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상 장지웅
동창회장상 김도섭
서울치과의사협회장상 나승호
우등상 김소희, 이호선, 이승훈, 채송화, 김현혜, 허석, 임유경, 한동우
경희봉사상 진중언, 이준우, 정지민, 장정훈
우정상 장정훈

2011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치의학과 학위 수여자

석사 학위 수여자
 강주한, 김병철, 김정호, 김진만, 류경희, 박재상, 박하나, 오르트나산, 유용재, 유은규, 유창선, 이경실, 이고운, 이수연, 이현중, 장봉석, 전성민, 정수진, 정우진, 최용하, 최우진, 태경석, 홍성진(23명)
박사 학위 수여자
 강상욱, 김민성, 김재식, 김정준, 김주동, 남윤식, 노관태, 배민수, 서영홍, 성정민, 신윤섭, 안관식, 오주영, 유정은, 유창훈, 윤일권, 이승우, 이영훈, 이은만, 이을재, 이정복, 임해수, 정윤주, 정진욱, 조연희, 최근락(26명)

이수정(약안면조직재생학교실)

주요경력

- 2006년 호주 멜번 의과대학 해부 및 세포생물학에서 신경과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
- 2007년~2009년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신경과학센터 신회섭 박사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
- 2009년~2011년 국립싱가포르 대학 DUKE-NUS의과대학 신경 및 행동이상학과 조지 오거스틴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
- 2011년~2012년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뇌과학연구소 기능커넥토믹스 센터 조지 오거스틴 박사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

연구분야

- 세포 및 신경 전기 생리 및 이미지를 이용한 신경 회로 연구
- 수면 및 수면 관련 질환
- 신경원성 통증



- 자석 유지 장치에 관한 연구

배호재(약안면생체공학학교실)

주요경력

- 2008년 3월 1일~2008년 10월 31일 Clemson대학교, 포스닥
- 2008년 11월 1일~2010년 10월 31일 하버드의과대학, 포스닥
- 2010년 12월 1일~현재 하버드 의과대학, 전임강사

연구분야

- Microengineered Biomaterials Based Hydrogels for Tissue Engineering
- BioMEMS based Embryonic Stem Cell and Tissue Engineering



김덕수(치과보존학교실)

주요경력

- 2009년 5월~2012년 2월 경희의료원 치과병원 임상강사 및 임상전문교원 역임
- 2012년 3월~현재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존과 조교수
- 2009년 5월~현재 대한치과보존학회 전문의 진속지도의

연구분야

- Adhesive Dentistry
- Operative Dentistry
- Mechanical properties of dental composite



노대현(약안면조직재생학교실)

주요경력

- 2010년 10월~2012년 2월 박사후연구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BK21수의과학연구인력양성사업단
- 2010년 9월~2011년 2월 시간강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 과학교육학과
- 2009년 9월~2010년 8월 박사후연구원, 전남대학교 바이오치료연구인력양성사업단

연구분야

- 신경병증성 통증유도 과정에서 척수내 sigma-1 수용체와 교세포 활성화의 역할 규명 연구
- 두통 및 구강악안면 통증의 동물모델 개발 및 통증조절 표적인 자 스크리닝 연구
- 척수내 stem cell 이식을 통한 신경병증성 통증의 억제 효과 및 작용 기전 연구



김정목 Kim, Jungmok(구강생화학학교실)

주요경력

- 2006년 12월~2007년 10월 Univ. of Michigan, Ann Arbor, Post-Doctoral fellow
- 2007년 11월~2008년 12월 Univ. of California, San Diego, Post-Doctoral fellow
- 2009년 1월~2012년 2월 Univ. of California, San Diego, Assistant Project Scientist
- 2012년 3월~현재 Present. Assistant professor, Kyung Hee Univ

연구분야

- Signal transduction of cellular energy sensing (AMPK/ mTOR)
- Regulation and cross-talks between autophagy and energy sensing molecules
- Nanobio diagnostic system



안수진(치과보철학교실)

주요경력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보철과 인턴, 레지던트
- 서울위생치과병원 보철과 주임과장 및 중앙기공실장
- (현)강동경희대병원 치과/생체재료보철과 조교수

연구분야

- 임플란트 stability에 관한 연구
- 임플란트 식립후 초기 치유에 관한 연구



치과교정학 교실

- 2011년 9월 25일 교정학교실 4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청운관에서 개최되었다.
- 2011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에서 교정학과 우수진료과로 선정되었고 김수정교수가 미원의학상급상, 김성훈 교수가 우수교직원상 및 미원의학상 동상을 수상하였다.
- 2011년 10월 17일 박영국 교수, 서동휘, 노만기 선생이 2011년 10월 16일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일본교정학회(JSO)에 참석하였다.
- 2011년 12월 1일 경교회 특별강연이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지하강당에서 열렸다. 김기범 교수는 Non-compliant, Non-TADs Class II mechanic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1년 12월 8일 박영국 교수, 김경아, 양동민, 여립 선생이 대만교정학회(TAO)에 참석하였다. 박영국 교수는 'Patient friendly orthodontics to accelerate tooth movement,'를 주제로 한 강연하였다.
- 2012년 1월 28일 경교회 임상 교정 컨퍼런스 및 신년 교례회가 그랜드 엠버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어 3년차 노승현, 박정호, 장예진, 원필준 선생이 증례를 발표하였다.
- 2012년 2월 15일 전기학위수여식에서 김재식, 신윤섭, 이은만 선생은 박사학위를, 오르파 선생은 석사학위를 각각 수여받았다.

소아치과학 교실

- 2011년 7월 12일 명동 Ibis hotel에서 대학원 종강식이 있었다.
- 2011년 8월 27일 박재홍 과장의 연구년 환송회 및 대학원 개강식이 대려도에서 있었다.
- 2011년 9월 1일부터 일년간 박재홍 교수가 연구년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고, 김광철 교수가 주임교수, 최성철 교수가 과장으로 취임하였다.
- 2011년 9월 1일 최성철 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1년 9월 23~24일 강릉 원주 대학교에서 소아치과 추계학회가 있었다.
- 2011년 11월 4~6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일본 장애인 치과학회에 김광철 교수, 김미선, 이윤정 선생이 참석하였다.
- 2012년 1월 7일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치주과학 교실

- 2011년 9월 7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3차 치주과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 2011년 9월 8~10일 홍콩에서 개최된 APSP(Asian Pacific Society of Periodontology)에 허익 교수, 류병길, 박정수, 김혜미, 오나영 선생이 참석하였다.
- 2011년 10월 7~16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EAO(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에 허익 교수, 김성근, 박세용 선생이 참석하였다.
- 2011년 10월 30일 북한산으로 권영혁 교수 이하 전의국원 및 의국원 동창들이 참석한 가을산행이 있었다.
- 2011년 11월 11일 오사카 대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박준봉 교수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 2011년 11월 26~27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신승일 교수가 동선신인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2011년 12월 9일 엘타워에서 치주과 40주년 기념식과 송년회가 있었다.
- 2011년 12월 22일 박준봉 교수가 바보의 나눔 대축제에 참여하였다.

영상치의학 교실

- 2011년 9월 1일 김규태 교수가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1년 10월 8일 전북대에서 개최한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강주한 선생이 구연발표를 하고 신인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2011년 10월 10일 후쿠오카 치과대학 환영회를 하였다.
- 2011년 11월 11일에 아다미에서 이상래, 최순철, 고헌준, 황의환, 최용석 교수가 '도해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제2판을 출판 기획을 했다.
- 2012년 1월 14일 종로구 한식당 '자하문'에서 경희대학교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교실 동문모임(희선회) 신년교례회 및 학위명패수여식을 하였다.
- 2012년 2월 15일 김민성 선생이 박사학위를 강주한 선생이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안면통증·구강내과학 교실

- 2011년 8월 25일 서울 불교대학원과 진료 협약식을 하였다.
- 2011년 10월 구강안면통증센터에서 '마음챙김' 명상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 2011년 10월 15일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홍정표 교수가 강연을 하였다.
- 2011년 11월 5일 대한노년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양현 교수가 강연을 하였다.
- 2011년 12월 QI경진대회에서 구강내과 및 만성구강안면통증센터가 금상을 수상하였다.
- 2011년 12월 4일 KBS 1R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전양현 교수가 구취를 상담하였다.
- 2012년 2월 25일 KBS 1R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전양현 교수가 구강내과질환을 상담하였다.

치과 보존학 교실

- 2011년 9월 9일~2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럽 근관치료 학회에 참석하였다.(최기운 교수, 이지혜, 김건령선생)
- 2011년 9월 22일 장상건 선생의 implant특강이 있었다.
- 2011년 10월 27일 경론회 12차 정기 총회가 제우스 스타에서 있었다.
- 2011년 11월 7일 Seingo Kutlur 교수의 Wave one강의가 있었다.
- 2011년 11월 11~12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보존학회가 있었다. (정우진, 최우영, 박지혜, 김진만 poster발표, 김진만 조성근, 류지아 구연)
- 2012년 12월 4일 접착 치의학회 학술대회가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있었다. (김선영 교수 강의)
- 2012년 1월 14일 교수와 의국원 동창들이 모인 경론회 신년 교례회가 영동호텔에서 있었다.

보철과학 교실

- 2011년 7월 9일 서울대에서 열린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학술대회에 최대균, 권공록교수, 노관태, 백장현전임의, 수련의 일동이 참가하였다.
- 2011년 9월 2일 최우진선생이 치대병원 우수직원 포상을 받았다.
- 2011년 9월 8~12일 하와이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llege of Prosthodontics(ICP) meeting에 권공록 교수, 노관태 전임의, 홍성진, 노현식 선생이 참가하였다.
- 2011년 10월 12일~15일 이성복교수가 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EAO, Athene, Greece)에서 강연하였으며 세계 10대 임플란트연구자로 선정되었다.
- 2011년 10월 15~16일 최대균, 권공록 교수가 주관하는 총의

- 치연수회를 개최하였다.
- 2011년 10월 22일~23일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창립 31주년 학술대회에서 이성복 교수가 강연하였다.
- 2011년 11월 15일 보철학교실 개설 40주년 기념 행사를 63빌딩에서 개최하였다.
- 2010년 11월 19~20일 COEX 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성복 교수가 “가철성 국소의치의 치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로 강연하였고, 이석원 교수, 박재상, 이현종, 홍성진 선생이 구연발표, 박수정, 최우진, 김태훈, 정소미 강현주, 이도연 선생이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 2011년 11월 26일 AGD 필수교육 임상실습프로그램이 김형섭, 배아란 교수 주관 하에 경희대에서 열렸다.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 2011년 7월 1~3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ITI congress Korea에 참석하였다.
- 2011년 9월 24일 구강암 연구소 테마 연수회에 참석하였다.
- 2011년 11월 17~19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 50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2011년 12월 15일 ITI KHU meeting이 W hotel에서 개최되었다.
- 2011년 12월 17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학술집담회에 참석하였다.
- 2012년 1월 14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Dr. Wolford 초청 강연에 참석하였다.
- 2012년 2월 18일에 경희대학교 정보행정동에서 오승환 교수 초청 강연 ‘한국인 얼굴유형에 따른 악교정 수술의 치료계획’을 개최하였다.

악안면생체공학 교실

- 이진용교수는 In vitro activity of deferroxamine against Porphyromonas gingivalis (FEMS Microbiol Lett)의 국제 SCI 2편을 발표하였다.
- 권일근교수는 Biomaterials 외 국제 SCI 11편을 발표하였다.
- 이상천교수는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IF=12.73 외 국제 SCI 4편을 발표하였다.
- 허정선교수는 MOLECULES AND CELLS 국제SCI논문을 발표하였다.
- 권일근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조직의 기능적 복원을 위한 기능성 고분자 유도체 개발'로 1억8천만원등 총 4개



- 의 연구과제에서 총 4억 1천 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이상천교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생체활성물질이 임플란트 내부에 탑재 가능한 디자인 개발' 등 총 6개의 연구과제에서 총 5억 6천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황유식교수는 중소기업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총 4개의 연구과제에서 총 3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허정선교수는 한국연구재단 '배아줄기세포의 골세포 분화 조절인자의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로 4천 5백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치과약리및독성학 교실

- 강상욱 (석박사 통합과정 4년) 윤일권 (박사과정 2년차, 4학기)선생이 치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악안면조직재생학

- 이현우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 일반연구자 지원사업과 학문후속세대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 이현우 교수가 농진청 세포신호전달 조절을 통한 바이오신약 개발을 주제로 2011년도 바이오그린 21사업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다.

예방/사회치과학 교실

- 박용덕교수는 2011년 12월 J Chromatogr A에 국제 SCI논

문을 발표하였다.

구강해부조직학 교실

- 신제원 교수가 2011년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한국기초치의학협의회 회장 선임되었다. 신제원교수는 Angle Orthodontist 외 국제 SCI논문 1편을 발표하였다.
- 주성숙 교수가 도쿄의과치과대학에서 연수하였다. (2011. 2. 1~2012. 2. 29)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 교실

- 2011년 10월 독일 Hannover에서 개최된 Biotechnica 2011 Molecular Diagnostics Conference에 김정희 교수가 참석하였다.
- 2012년 2월 이을재 선생이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치과재료학 교실

- 2011년도 SCI논문 2편, SCIE 1편, 학진등재지 1편의 연구논문 발표 및 학술저서 1편을 발행하였다.
- 2011년 11월 17일 2011년도 대한치과기재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주관하였다.
- 2011년 5월~2012년 3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위탁과제 '신개발 접착제의 특성 및 생체적합성 평가' 연구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경회인의 밤(왼쪽),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2012년 신년 교례회(오른쪽).



2011년 11월 21일 7시 강동구 동문회

장소: 명지원
40회 졸업생 동창회 입회식(광장동 아리아 레스토랑)

2011년 11월 24일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경회인의 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011년 11월 29일

치과대학 동문회 정기 총회
장소: 세종호텔 서울 한식당 은하수
나궁균(10기)회장님 연임
감사: 이영식(8기), 이근혁(9기), 김두영(9기)

2011년 12월 9일 부산동문회 송년회

오후 7시 30분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2011년 12월 17일

13회, 15회 동기회 송년회

2011년 12월 18일 Molar forever 6차 정기연주회

오후 3시 미사리 윤시내연애

2011년 12월 30일 회장단회의

오후 7시 도다리 안건: 임원선출
나궁균회장, 마경화부회장, 안민호부회장, 박능석총무, 조선경재무 참석

2012년 1월 11일 치협 신년회

오후 7시 프라자호텔 나궁균회장 외 다수의 동문 참석

2012년 1월 12일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오후 7시
소공동 롯데호텔
나궁균회장, 안민호부회장, 박능석총무 및 다수의 동문 참석

2012년 2월 11일 부산동문회 정기총회

오후 5시
부산 롯데호텔
나궁균회장, 안민호부회장, 박능석총무조선경재무 및 다수의 동문 참석

2012년 2월 15일 신입 학생회 면담

오후 7시 유성관
나궁균회장, 박능석총무, 조선경재무, 김봉현총무간사 참석

2012년 2월 20일 경여치 총회

오후 7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나궁균회장, 조선경재무 등 다수 동문 참석

2012년 2월 22일 치전원 신입생 OT

오후 7시
충주 컨벤션리조트
나궁균회장, 박능석총무, 김봉현 총무간사 참석

2012년 3월 7일 초도이사

장소: 동보성 (명동역 3번출구)
지부방문의 건, 골프대회 개최의 건, 구인, 구직 활성화 대책, 홈페이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토의
6월 3일 히든밸리 cc에서 골프대회 개최하기로함.

진료봉사동아리 - CDSA



CDSA는 방학 동안 각지에 계신 CDSA 출신 선배님 병원을 방문하고, 겨울 장기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겨울장기진료는 구강외과 김영주 선생님을 지도치과외과로 모시고, 2월 1일~ 4일에 걸쳐 경기도 포천시의 영중 농협에서 약 170여분의 환자분들에게 치과진료와 구강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심 좋은 영중면 어르신들과 환자분들 덕에 더욱 뜻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진료봉사동아리 - KODA

KODA는 2월 7일 거제도에 계시는 18기 이창진 선배님을 방문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배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선배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 많은 반성과 여운이 남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KODA는 겨울 방학 동안 전국 각지의 선배님들을 찾아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합 진료봉사 동아리 - WONDERS



진료봉사 동아리 WONDERS는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온양으로 장기 진료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환자들을 보살피며 치과외과의 자세에 대해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진료봉사동아리 - WBM

WBM은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경기

도 관인 영북 농협에서 3일간 장기진료를 실시, 총 117명의 환자가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 반 만에 재방문한 봉사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께서 다시 방문하여 주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료봉사 동아리 - 의료연구회

의료연구회는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으로 겨울 장기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의료연구회 출신 이신 82학번 장봉열 선생님, 87학번 김영오 선생님, 02학번 홍성진 선생님(보철과) 07학번 방주혁 선생님(보철과)께서 장기진료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의료연구회 지도교수님이셨던 최대균교수님의 퇴임연이 있었습니다. 재학생 주최 퇴임연은 2월 1일에 경희대학교 근처에서, 의료연구회 OB 선배님들께서 주최하신 퇴임연은 2월 11일에 대치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 모퉁이들



모퉁이들은 지난 7월, 전남대 치전 기독교 동아리, 몽골 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8박 9일 동안 몽골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임시 진료소를 마련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몽골의 자연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의 비전 트립 동안 서로 배려하고 섬김으로서 하나가 되어 돌아왔고, 2012년 비전 트립도 기대됩니다!

배구부 - NET

배구부는 1,2,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새해 훈련일정과 훈련내용 토론 및 단합을 위한 MT를 추진하였습니다. 리조트에서 있었던 이번 MT는 향후에 정식

동아리 일정으로 편입하여 구성원간의 끈끈한 우애를 다지고 팀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농구부 - UNIT



농구부는 10월 8일 오후 4시에 르네상스관에서OB/YB전을 치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의 OB선배님들이 대거 참석,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OB선배님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선배후배간의 유대를 끈끈히 하였습니다. OB선배님들이 치과외과 선배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진심어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YB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야구부 - Dental Ace



Dental Ace는 겨울방학 동안 선수 출신 코치를 섭외, 매주 실내연습장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추가 레슨을 자원할 정도의 이들의 열정에 코치가 감동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1월 27일 목동넥센 야구장에서 평가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에이스의 열정으로 목동구장은 매우 뜨거웠다고 합니다.

산악부 - KHDAC

산악부는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2박 3일간 지리산 중주를 다녀왔습니다.

니다. 장기 겨울산행 경험이 없는 부원이 많아 걱정했지만, 모두 무사히 중주를 마쳤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산행한 선,후배님들과 시작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원들 챙겨주신 이현우 교수님, 배준상 박사님, OB선배님들 덕분에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스킨스쿠버 동아리 - Dental Divers



다이빙은 권일근 교수님, 박재홍 교수님을 비롯한 선,후배 여러분과 함께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해운대로 여름원정을 다녀왔습니다. 해운대의 다이빙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함께하고, 다음 날에는 해운대 수상 관광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축구부 - KHDS



축구동아리 KHDS는 작년 11월 고향캠을 마치고 교수님과 선후배가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1,2학년 학생 전체의 열렬한 응원으로 4강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올해에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봅니다. 축구부 화이팅!

테니스부 - Y.D.T.C.

2011년 Y.D.T.C.가 40주년을 맞아 11월 5일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념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테니스부

YD는 1972년 4월 벽제의 테니스 코트에서 헌관식을 가진 뒤, 수많은 선배님들의 애정과 노력으로 40년을 이어 왔습니다. 이날 약 60여명의 OB선배님들과 함께 40년간의 추억을 나누며 YD인으로서 다시 한 번 자랑스럽고, 행복해 진 하루였습니다.

기타동아리 - 애아르시



애아르시는 2월 9일~12일 3박 4일 간 양평으로 겨울 music camp를 다녀왔습니다. 추억의 노래들을 연주해 보는 시간도 갖고, OT 공연곡들도 연습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OB 선배님들의 따뜻한 방문까지 더해져 아주 훈훈한 mc였습니다. 이번 여름, 신입생들과 함께할 mc가 벌써 기다려지네요. ^^

미술부 - 흙



미술부 仝(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 29회 정기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완성한 작품을 전시 하였습니다. 작품의 수가 총 41점으로 전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주제와 양식도 다양해져, 양과 질의 향상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하신 내외빈께서 작품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을 해주셔서 동아리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밴드 동아리 - Molars

Molars는 방학 시작과 함께 신입생 OT 공연을 위한 선곡 및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OB Molars 선배님들의 연습실을 방문하여 OB 선배님들 수준 높은 연습을 보고 앞으로 YB도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OB선배님들과 YB가 함께 연습도 해 보았어요^^마지막으로, 2월 10일, 이번에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을 환송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 D.O.



오케스트라 동아리 D.O.는 8월 31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동아리 창단 후 첫 정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OB선배님들께서 직접 축하공연을 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셨고, 귀에 익숙한 영화 OST 등을 비롯한 많은 곡들을 연주하여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클래식기타 동아리 - Strings

Strings는 고향치전에서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초보라서 공연 준비하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월 22일 신입생 OT 공연은 더 잘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편집부

편집부는 2012년부터 정식 동아리로 이름을 올려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쳐보일 예정입니다. 더욱 풍성하고 알찬 치우현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페라, 알고 즐기자!

파리넬리

오페라란?

흔히들 오페라는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오페라 한 편에서 오케스트라, 합창, 무용, 연기, 특수효과, 연출, 조명, 무대 디자인, 소품, 분장 등 예술의 많은 장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쉽게 연극에 음악을 입힌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비슷한 뮤지컬, 판소리, 경극 등과 오페라는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오페라에는 '대사가 없다'는 것이다.

뮤지컬이나 판소리에서는 노래 사이에 말로 하는 대사가 있으나, 오페라에서는 대사없이 모든 부분을 노래로 표현한다. 그래서 오페라에서 노래는 뮤지컬이나 판소리의 노래에 해당하는 '아리아'와 아리아 사이를 연결하는 '레치타티보'로 나눌 수 있다.

아리아는 음악적인 부분을 중시하며 완벽한 한 곡의 형태와 아름다운 선율을 갖추고 있는 반면, 레치타티보는 노래이긴 하지만 가사 전달을 목적으로 한, 불완전하고 단순한 단선율조의 노래 형태를 갖는다. 즉, 오페라는 '아리아와 아리아 사이를 레치타티보로 이어 주는 음악극'이다.

오페라의 여러 소리들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를 부르는 배우들의 목소리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먼저, 테너, 바리톤, 베이스의 남성 성부에서 주인공 소프라노를 사랑하는 사람은 테너가 말한다. 그 테너의 연적이거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은 바리톤이 맡고, 그 다음 역할로 수도승, 노인, 왕 등은 베이스가 주로 맡는다.

베르디 이전, 특히 모차르트 이전까지



카스트라토들은 키나 흉곽이 남자처럼 발달하여 여성 같은 고음을 구사하면서도 소프라노보다 더 멋지고 독특한 음색과 화려하고 긴 호흡의 발성이 가능하였다.

영화 '파리넬리'에서 보는 것처럼, 17-18세기에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렸으나, 소리가 자연스럽게 못하다고 싫어한 작곡가들도 있어 로시니 이후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최근에 성악적 훈련에 의해 여성 성부를 부르는 카운터테너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 대부분의 극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여성 성부에서 주인공은 주로 소프라노가, 소프라노의 연적인 여성은 주로 메조소프라노가 맡는다. 그 다음의 배역, 제 3의 역할을 알토가 맡게 된다. 알토는 '콘트라alto'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지금 오페라에서는 거의 잊혀진 성부가 되어버렸다.

'카르멘', '베르테르', '삼손과 데릴라', '미농' 등에서와 같이 메조소프라노가 주인공이 되는 작품도 있긴 하지만, 오페라의 여자주인공은 대부분 소프라노이다.

앞으로 아리아를 듣거나 오페라를 볼 때, 연극적 요소는 기본으로 각 배역의 성부에도 관심을 갖고 음색을 느끼면서 감상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보시길...

자료 출처: 박종호에게 오페라를 묻다 (시공사)

글: 치주과학교실 조교수 강경리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La Jolla Institute for Allergy and Immunology



La Jolla Institute for Allergy and Immunology 전경

나는 2010년 8월 3일부터 2011년 8월 3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비영리사립 연구소인 La Jolla Institute for Allergy and Immunology (LIAI)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였다. LIAI 설립초기에는 주로 알러지 관련 연구를 주로 하였지만 현재는 면역학 전 분야에 걸쳐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LIAI는 일본의 Kirin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 1989년 IgE를 발견하여 알러지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Dr. Kimishige Ishizaka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LIAI는 Kirin과의 스폰서십 관계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UCSD)와의 협력관계를 맺어 5년 전에 UCSD 캠퍼스 내 Science Research Park 내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이주하였다.

LIAI는 미국 내에서 산학연간에 교류가 긴밀히 이루어지는 대표적 연구소 중

하나이다.

LIAI의 책임급 연구원 중 대부분은 UCSD 의과대학의 adjunct professor로 재직하고 있고, 일부는 UCSD에서 박사과정 학생을 위탁교육하고 있다. Kirin이 스폰서인 만큼 LIAI에서 창출되는 대부분의 지적재산은 Kirin이 일차적으로 권리를 갖는다.

잘 알려져 있듯이 Kirin은 질병 진단 및 치료용 인간 단클론 항체 (monoclonal antibody)를 생산하는 생쥐 라인 (trans-chromosomal 생쥐: TC mouse)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LIAI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를 통해 밝혀진 질병치료 표적분자에 대한 단클론 항체는 동물모델에서 검증되고, Kirin은 TC 생쥐 혹은 다른 기술을 통해 생쥐 항체를 인간화하여 임상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수행한다. 현재 다수의 질병 치료용 항체가 임상 실험 중이며 곧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CD40항체, OX-40항체,

LIGHT항체 등).

LIAI는 면역학 한 분야만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top-class 연구기관이다. 연구소 제1대 소장인 Dr. Kimishige Ishizaka, 제2대 소장인 MHC/TCR 상호작용에 선구적 연구자였던 Dr. Howard Grey를 거쳐 현재 NKT 세포생물학 및 점막면역학 분야의 세계적학자인 Dr. Mitchell Kronenberg가 3대 소장으로서 있다. LIAI에는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 몇 개의 Division으로 나누어져 있다. 분자면역 Division은 주로 TNF/TNFR계 단백질의 알러지/천식, 자가면역 질환, 항바이러스 면역 분야에서 연구한다.

필자가 연구를 수행한 Dr Michael Croft는 OX40, 4-1BB와 같은 TNFR계 분자를 분자세포 준위에서 연구하고 있다. 발달면역 Division은 NKT 세포 및 조절 T 세포가 위장관 질환, 제1형 당뇨병, 감염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이외에도 세포면역 Division은 T세

포와 Mast 세포 생물학을 연구한다. 최근에는 하버드대학에서 Dr. Roa 와 Dr. Hogan이 합류하여 세포신호전달 및 유전자 발현 연구 Division을 설립하였다.

LIAI는 기초면역학 연구이외에도 임상 중계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백신개발과 감염증증 분야가 대표적인 예이다. 연구소 내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ID)를 설립하여 다양한 감염질환을 연구한다. CID는 감염질환 분야에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인 NIH's Immune Epitope Database (IEDB)를 구축하여 세계 모든 연구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나는 분자면역 Division의 Dr. Croft와는 TNF/TNFR계 분자 중 하나인 4-1BB/4-1BBL에 관해 유사한 연구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그의 연구/연구실 대해 궁금하였고 또한 마침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내용에 대해 그도 관심을 보여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하고 있는 연구는 Sjogren's Syndrome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관여하는 선천성면역세포 활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인 4-1BBL 역신호전달과정이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단백질을 동정하여 그것이 4-1BBL 역신호전달과정에 관여하는 함을 규명하였다. 나는 이러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고 확실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그의 실험실에만 있는 동물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또 여러 분자세포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얻

을 수 있었다.

LIAI 연구소의 특징은 모든 실험실과 장비가 24시간 연구소 소속 모든 연구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intranet으로 실험 장비를 예약하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시약이나 실험에 관한 모든 질문 사항을 메일을 통해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하여 쉽게 문제나 필요한 부분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모든 실험실 구성원이 매주 한 번씩 진행하는 저녁클럽과 연구진행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서로에게 자극과 동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 역시 미국에서 학위과정과 박사후연구과정에서 끝난 10여 년 후 처음으로 규칙적인 발표를 하였고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매주 진행되는 외부 유명연구자의 세미나 역시 큰 자극이 되었다. 특히, Stanford 대학의 Dr Garry Nolan의 연구는 놀라울 만큼 선도적이어서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과학적 관점에서 절망과 같은 깊은 회의를 갖기도 하였다.

주거지로서의 샌디에고에 관한 일반적인 유명세를 차제 하더라도 내가 느낀 바로도 최고였다.

유학시절 미국 동북부와 남부에만 있었던 나에게 샌디에고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해변지역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였다. 온화한 날씨, 바다, 설핑, 자전거, 달리는 사람들, 자유로운 분위기. 거의 매일 달리기를 했던 Torrey Pine Beach, Mission Bay Park, 설핑을 배우던



Pacific Beach....

아이들 엄마 한국직장 때문에 나와 아이들 셋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은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고 지금도 아이들과의 관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Long Beach 마라톤과 San Diego 마라톤 풀코스 대회에서는 미국 달림이의 즐기는 마라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이번 연구년을 유학과 박사후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지 10여 년 만에 다시 미국에 장기간 가족과 함께 머문다는 생각에 막연히 들뜬 생각으로 시작하였지만 연구에 대한 또한 연구자, 교육자,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또한, 아이들 엄마의 부재를 통해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사진 치과약리학교실 부교수 이현우



Torrey Pine Beach



Long Beach Marathon

김인철 2대 학장님과의 대담

높은 자리 갈수록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경희대 치대가 치과대학으로서 명성을 얻기까지 초창기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치과대학이 생기고 나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영식 학원장님께 치대에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부탁한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국가고시를 앞으로 10년 동안 100% 합격만 달성하면 해외연수, 공로비석 등등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모험을 했었지요. 그 당시 12명의 교수와 학생이 합심하여 결국엔 이루고 나니까 신입생들도 선배들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왔고 결국 치과 대학이 경희대학교 간판 단과대학이 되었고, 당시 조영식 총장님께서도 더욱더 많은 지원 해주셨지요.

초창기 치과대학 건물 지을 때 어려웠는지요?

처음에야 교사도, 병원도, 아무 것도 없었

지. 그래서 내가 치과대학 부지를 정해서 새끼줄로 펜스를 쳐놨어요. 그랬더니 의료원장님하고 총장님이 나를 불러요. 거기다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그래서 내가 “여보쇼, 여기 치과대학 부지로 내가 새끼줄로 울타리 해놓은 건데. 만약 간호대학 짓겠다고 내가 앞장서서 데모할테니 그렇게 야쇼.” 그랬더니 두 분이 황당해하며 껄껄 웃더라고요. 그렇게 거기다가 치과대학을 지은거지.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치과대학을 지었는데 그 다음엔 유닛체가 20대밖에 없었지. 그 때 마침 신문을 보니 국가에서 일본 차관이 있다는데, 의대와 공대만 지급대상이 된대요. 마침 내가 서울대 병원장 시절에 있던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교육부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는 거야.

내가 찾아가서 “나 알지? 차관 70만불

그것 좀 달라”고 해서, 그건 의과대학하고 공과대학밖에 안 된다는 걸 억지로 받아왔지. 70만불이면 그때 돈으로 5억이예요. 그 70만불을 가지고 유닛체어도 새로 구입하고, 기초학교실 현미경 등 기자재 사는데 썼어요.

사회적으로 치과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국 치대 학장들이 단결해서 치과대학 학생들을 반만 뽑고 전체 치과계를 생각해야 돼요. 전두환 대통령 때 30명 정원 더 준다고 했어요, 그럼 120명 되는 거였죠. 내가 학장 때 반대했어요.

앞으로는 더 힘든 시기가, 한의사들처럼 똑같은 설움을 당할 시기가 와요. 지금 젊은 치과의사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진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왼쪽부터 김철호 학생회총무, 김동희 학생회부회장, 최영균 학생회장, 김인철 2대 학장님, 박준봉 대학원장, 권수연 보철과 레지던트 2년차, 배아란 조교수.

요즘 치과계는 문제가 많아요, 그 중 제일 문제는 환자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 치과의사 위주야. 임플란트는 치과의사 위주이지만, 이제는 환자 위주로 해야 돼요.

7월부터 덴치가 이제 의료보험에 포함이 되는데, 난 찬성이예요. 임플란트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요. 덴쳐해야 해요. 그래도 밥 세끼 먹고 살지, 지금 현실은 일종의 치과의사의 횡포에 의해 생긴거예요.

학장님께서는 왜 치과의사가 되셨나요?

일제 때 살기가 어려웠지. 우리 아버지가 개성에서 학교 교사셨고 내가 만아들인데, 치과의사 개업한 사람들이 잘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권하셨지.

그 때 치과대학 시험을 봤는데, 정원 100명 중에서 일본학생이 60명, 한국학생이 40명, 근데 내가 워낙 똑똑하니까 거기에 합격이 되었어요. 49년도에 치과의사 됐어, 60년이 넘었지요?

학장님 면허번호는 몇 번이세요?

면허번호 12번. 치과의사 중에 최고 원로예요. 난 치과의사가 된 후에도 치과의사보다 행정에 관심이 더 많아서 공직치과의사회를 설립하고 회장도 했어요. 47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도 하고. 까분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사실 난 인상은 잘 모르고 깊이 안 들어갔어, 성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난 예전부터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도전하시고, 모두 도전하세요. 이 세상사는 데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도전하고, 비굴하게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난 평생을 도전했어요.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한다고 하면 뒷사람들이 허락 안 해줄 것 같아도 밀어 붙이면 되게 되어 있어요. 정식으로 다 허가받고 이거 저거 다 궁리만 하면 언제 하나? 거꾸로라도 하

다 보면 하게 되어 있고 되게 되어 있는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바깥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경희대학 출신들의 활동이 별로 없어요. 우물 안 개구리지. 근데 난 그걸 굉장히 섭섭해. 이렇게 되던 사회에서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도 최근엔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있고, 예전엔 정재규 전 회장님도 있으시고, 그러니 현재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학생회장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전국의 학생회장이 되고, 졸업 후에는 대외활동도 많이 해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높은 자리 갈수록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해요. 은혜입은 분에게는 평생 찾아뵙고 감사해야 해요, 아니면 사회에서 열등생 되요. 나도 나이 드니 전화오고 찾아오고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하세요.

대담장리 치과보철학교실 조교수 배아란

치과재료학교실 /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치과재료학교실 대학원 워크숍(2010년 8월)

치과재료학교실

전공주임교수 임호남

박사 정병선, 임선희, 이정열, 조인교,
김려수, 김종수, 김성환, 조영주, 김영호
재학생 김창용, 최범웅, 김지훈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소장 임호남

품질책임자 박수자
기술책임자 신자용
기술자문위원 이상혁 박사, 이문규 박사,
김영훈 교수
전문시험원 홍운경, 김신애, 최한나,
김진태, 송지후
일반시험원 유연숙, 박진영, 조연주
행정직원 윤은진, 간진아, 채은화, 임영심

치과재료학은 치의학에서 사용되는 치과재료의 특성, 사용법, 성능등을 포괄적으로 교육하므로써 치과재료의 선택은 물론 임상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변수와 문제점등에 대한 해결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학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1989년 치과재료학교실이 설립되었으며, 당시에는 의학관의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초대교수인 임호남 교수와 조교 1명으로 단출하게 시작되었다.

이후 1993년 치과대학부속병원이 완공되면서 병원 6층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으나, 공간배치 등으로 동 건물내에서 또 한번의 이전이 있었다. 몇차례 이전을 거치면서 재료학교실은 점차 기초학실험실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고, 실험실 환경도 개선되었다.

2000년도에는 전공주임교수인 임호남 교수의 그간의 연구 및 개발 실적을 기초로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설립과 동시에 KFDA에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으로 등록하여 의료기기(치과재료)의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시험검사는 수입(제조)된 의료기기(치과재료)가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등을 평가한다.

만능강도시험기, 피로시험기, 토션테스터, 열분석기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동물시험 및 세포독성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1월에는 치의학관이 완공되어 치의학관 7층으로 또 한번의 이전이 있었다. 이 곳에는 기초시험실, 동물실, 무균실, 세미나실등이 갖추어져 있어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재료학교실 및 센터가 위치한 곳이 바로 치의학관7층이다.

2010년 4월에는 실험동물에관한법률에 따라 KFDA에 동물시험시설 등록을 완료하였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므로써, 동물실험계획 및 실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는 재료학교실 설립 20주년을

맞아 8월 21과 22일 양일간 설악산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워크샵을 실시해 성황리에 마쳤고, 매년 5월이면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위탁과제인 '신개발 접착제의 특성 및 생체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활발히 진행중이며, 11월에는 치과병원 지하강당에서 대한치과기재학회를 개최하고 발표에 참여하는 등 학술활동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신개발의료기기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치과영역 안전성·유효성 심사, 재심사, 임상시험 계획 승인, 희소의료기기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거치며 현재의 치과재료학교실은 다수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재학생들과 더불어 활발한 학술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에는 대학원생들의 연구의 질을 높여 SCI 등재 학술지에 많은 연구 논문을 게재하도록 다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는 소장님 이하 시험원 및 행정원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시스템 정비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시험성적서를 발행 하므로써 최고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성장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1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직원.
- 2 전신독성시험.
- 3 대한치과기재학회 이사회(2011년 11월).
- 4 발열성시험.
- 5 치과재료학교실 대학원 워크숍(2010년 8월).
- 6 감작성시험(LLNA).
- 7 치과재료학교실 스승의 날 기념행사(2011년 5월).
- 8 만능강도시험기.



2011학년도 발전기금 약정

- 1억 원 이상** 이창진
- 7천만 원 이상** (주)신흥
- 5천만 원 이상** 곽약훈 이재광 치과대학동문회(지순준 외)
- 3천만 원 이상** 김학찬 이정우 장지우 전요한 치과대학대전동문회, (주)비스코덴탈아시아
- 2천만 원 이상** 김용래 박준봉
- 1천만 원 이상** 공희정 권영혁 김광휘 김규남 김성기 김성욱 김승윤 김여갑 김영훈 류동목 문정기 박양제 박주연 박태용 백두흠 서광원 송요선 신응범 신한식 오우대학 이기수 이두희 이상혁 이상복 이윤 이한우 장상건 장지현 정극모 정성민 조영욱 최영철 한만형 한정희 치과대학 12기동문회, 치과대학 13기동문회, 치과대학 19기동문회, 치과대학 22기동문회, 치과대학 2기동문회, 치과대학 3기동문회, 치과대학 6기동문회, 치과대학 9기동문회, 치과대학 수원지역동문회, 경희치과병원, 경희치과의원, 참조은치과병원, (주)지-씨 코리아
- 8백만 원 이상** 김광철 김세영 김인화 박영국 오스텨임플란트(주)
- 5백만 원 이상** 고광준 권일근 김기태 김려수 김상일 김수철 김영진 김용준 김필식 김필수 김항경 김형찬 박기범 박능석 박도양 박상혁 민효기 박내길 박두중 박병걸 박병욱 박봉규 박상규 박상기 박상현 박상훈 박석범 박순건 박순정 박영수 박영주 박은기 박승훈 박용덕 박재홍 박태용 박희경 백동준 신명 신제원 박일해 박재석 박정용 박철제 박철성 박현 박현석 배영수 백상규 백영걸 변태진 사영철 서경숙 서남영 서윤원 성락진 송국현 송민재 송은면 송재만 송근배 신동건 신동구 신혜련 안광식 안근국 안병규 안장원 어수철 엄인석 양승춘 우이형 윤옥병 이건영 이근주 이근혁 이명성 이상래 오세웅 오세윤 오정진 오정환 오창근 오충영 오현미 원미영 유선렬 유인영 유주현 윤경도 윤동호 윤두근 윤민의 이영식 이상철 이상호 이진용 이현우 임호남 장건택 정용식 정재규 이완규 이원섭 이원화 이인석 이재학 이재홍 이정열 이정현 이종인 이천복 이충복 이태수 이태호 이화연 이홍기 이희정 임기효 임길웅 임상욱 임천택 장영빈 장원중 장정태 장철민 장현주 장훈 전석열 전장환 전중혁 정관희 정대현 정선소 정용복 정인교 정주성 정철 정희일 제한봉 조동석 조병도 조성국 조성열 조영진 조의현 조익주 조정현 조재오 조준영 조해성 지유진 지찬동 최경구 최근락 최기운 조진호 지용기 지정호 지순순 차덕선 차애경 채영원 천무철 최대균 최성백 최용석 최유진 최호근 최명애 최상돈 최승규 최연석 최완철 최원재 최인식 최중우 최중실 최천영 하대주 한기림 한문식 한봉석 한정희 한중수 한창규 한휘철 허귀남 허성운 현원섭 홍선희 홍진표 허익 홍정표 황의환 황재상 황용구 세영치과의원, 이원준치과의원, 치과대학 16기 동문 일동
- 3백만 원 이상** 강기현 강승훈 고봉진 구한미 권근원 권순용 권용대 권태훈 김덕 김동호 김명환 김보혜 김석훈 김선규 김성용 김성환 김소현 김옥진 김우찬 김윤홍 김종환 김진오 김진철 김형남 김형섭 김형진 김효종 김훈희 남종현 마경화 민병순 박갑용 박남수 박동진 박미애 박상규 박상규 박상진 박성동 박수배 박영철 박희찬 백성선 백영완 부용철 성낙도 손세일 손원영 송창준 신민철 신민호 신완용 신의중 안민호 안희진 어규식 염상국 오범수 오병성 오성산 오승훈 오화탁 우정석 우택호 우형식 유석규 유신중 유영선 유용균 유충현 유형열 윤덕상 윤인중 이건욱 이광희 이규원 이공호 이동식 이만섭 이백수 이상태 이영준 이용호 이재천 이종태 이진표 이창재 임성빈 임성수 임순빈 임인학 장봉렬 장성진 장우익 장희웅 전양현 정동진 정병선 정순준 정연식 정운봉 정중혁 정창권 정철민 정형주 조남성 조민구 조세중 조인고 조재민 조정근 조태희 조한국 조호구 주성숙 천강정 최병환 최부병 최재영 최정규 최현수 최호영 한승완 한용환 한훈 허정욱 홍성태 홍영안 김정수 치과의원, 이치과의원, 최신치과, (주)덴티움, (주)악어미디어
- 2백만 원 이상** 권기열 권호진 김기문 김도완 김동기 김방수 김성진 김옥현 김은 김인수 김재승 김정우 김정희 김종규 김지태 김춘진 김흥모 나금균 류중균 모규업 문향진 박선영 박성근 박성원 박수진 박재현 백종은 손일수 신동진 신현택 오인종 유경민 유재홍 윤석우 이규찬 이미경 이상복 이상훈 이수인 이은준 이정민 이종규 이준열 이창진 이필제 이해승 인영미 임태수 장수일 정충모 조민우 조승제 하정상 치과대학 1기동문회, 오스텨임플란트(주),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 1백만 원 이상** 강정백 강한중 고진환 고천석 고철수 곽춘길 구국본 구분룡 구자경 구자룡 구재우 권수갑 기태석 길종선 김경용 김귀원 김문기 김미경 김봉현 김상석 김선욱 김선호 김성길 김성철 김세일 김수강 김영일 김용구 김재구 김재오 김재일 김재철 김정학 김종호 김중종 김진호 김철중 김충길 김태형 김택형 김해근 김현호 김혜경 김홍기 나성식 나종일 나태돈 남병우 남재형 노영역 류경희 류훈 문민연 문수인 문용환 문은영 정남희 정민수 정성민 정연진 정윤주 정의산 정준호 정지향 조규석 조영주 최대영 최동훈 최문철 최병준 최성연 최승모 최승현 최인 최현우 한기혁 한동인 한수희 한혜숙 홍해룡 황동현 황지영 프랜드치과의원, 함께하는치과
- 1백만 원 이하** 강대인 강승규 강철규 강혜령 강해성 고건호 고영훈 고창배 공선식 공준하 곽용훈 권순민 금구석 금미연 김광순 김광식 김규태 김남준 김대기 김동규 김명섭 김미경 김민성 김배경 김보균 김보라 김상균 김상우 김석용 김성원 김승일 김승일 김시원 김영기 김영덕 김영란 김영택 김윤희 김일환 김종현 김지현 김창용 김철순 김춘진 김학렬 김현경 김혜정 김호진 김홍광 나영민 노은희 류경희 류호경 모덕진 문영훈 문재룡 문희현 박경아 박경일 박근출 박기현 박동원 박수정 박승 박용호 박재춘 박정애 박창훈 박춘배 반대환 백효찬 변현홍 서경성 서찬호 손미연 송성국 송현우 신강섭 신동렬 신재창 안장원 양경돈 양광모 여병영 오승교 오승환 오은희 오주영 오현주 우승철 유용재 유지연 유지훈 유지석 유하균 윤성수 윤여진 윤원용 윤용섭 윤인택 윤현주 이대승 이석원 이성만 이수미 이수영 이시원 이영희 이윤정 이은권 이은만 이을재 이인석 이정교 이정호 이지민 이지혜 이채수 이태희 이현경 이현우 임경석 임종성 임진혁 장영명 장예진 장형준 정성근 전영신 전찬덕 모마치과, 성모치과, 송도드림치과의원, 연수준치과의원

경희대 치과대학 17회 동문회 발전기금 기탁과 더불어 졸업생 앨범 액자화



우리학교 치과대학 17회 졸업생(1989졸)은 지난 2010년 10월 졸업 20주년을 기념하고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기생 60여명의 뜻을 모아 모교에 3천만원을 기탁하였다.

동기회장(최동훈원장)은 “작은 기금이 학교발전에 새로운 전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며 전체 졸업생(1-38회) 앨범과 퇴직교수님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 대학역사와 추억의 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의 발전에 사용해 달라고 전하였다.

17회 동기 5명과 함께 학교에서는 박준봉 대학원장을 비롯, 김형찬 교수와 최경규 교수가 자리를 같이 했으며, 대학원장은 학교의 변화 발전상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17회 졸업생의 뜻을 높이 평가하고, 이 기금을 치과대학 발전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며, 향후 많은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입금내역(2011.09.01~2012.02.29)

- 1천만 원 이상** (주)덴티움, 권영혁, 곽약훈, 굿월치과의원, 김성기, 오구환, 이광섭
- 5백만 원 이상** (주)지-씨 코리아, 서광원, 허성윤
- 3백만 원 이상** (주)비스코덴탈아시아, 문정기, 변욱, 오스텨임플란트(주)
- 2백만 원 이상** 박노희
- 1백만 원 이상** (주)악어미디어, 경희치과병원, 박영철, 서산예치과, 송도드림치과의원, 이현우, 임종성, 정극모, 제한봉, 함께하는치과
- 1백만 원 이하** (주)신흥, 강남현, 강주성, 고일혁, 고현, 공승현, 권규현, 권정은, 박능성, 박동원, 박성규, 박원규, 박준수, 박지혜, 배기창, 배일환, 배한익, 백기현, 백영걸, 백진, 서재승, 소용섭, 신용문, 오나희, 오유리, 오정란, 오정환, 원현두, 유희승, 윤인택, 이동현, 이수욱, 이승규, 이연수, 이윤, 이정행, 이창규, 이한주, 이현우, 이현식, 이혜영, 임병진, 장상건, 장영배, 장현주, 장훈, 정성진, 조영욱, 최기운, 최승현, 최창규, 최호영, 최희철, 하지웅, 하지양, 한기협, 한만형, 한무연, 홍동희, 홍해룡, 황선달, 황윤태, 황의환